

냉장고 종류가 2만2000종? 개성 담은 맞춤형 가전

삼성전자 '프로젝트 프리즘'

각양각색 라이프스타일 담아 모든 소비자 만족 이끌 것
제품 가격도 기존과 비슷
생활가전까지 라인업 확대키로

맞춤형 가전 시대가 열린다. 삼성전자 '프로젝트 프리즘'을 통해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모든 가전을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형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4일 서울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프로젝트 프리즘 계획을 발표했다.

◆ 생활가전 '무지개빛' 시대

프로젝트 프리즘은 생활 가전을 소비자 중심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표준화해 제조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개인별 제품을 창조하고 광범위한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리즘은 밀레니얼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경험과 공유를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들과 독창적인 생활 가전을 한데 모으겠다는 의도다. 단, 최근 기성세대도 밀레니얼 세대 소비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다양한 세대가 프리즘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리즘은 삼성전자 가전 라인업에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3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별개 라인업이 아닌, 세프 컬렉션이나 패밀리 허브 등 브랜드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은 환영사에서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에 나만의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프로젝트 프리즘이고, 삼성이 각양각색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담아 내는 프리즘 같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 5층에 라이프스타일 공간 '#Project PRISM'을 마련하고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6가지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고 각자 공간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

고 구매까지 돕는다. 카페 등 컴퓨터 마련한다.

디자이너 6인과 협업도 진행한다. '가전을 나답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김종완, 김충재, 문승지, 양태오, 임성빈, 장호석 등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입한 것.

소비자들이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연다. 매주 금요일에는 프리즘 콘서트를, 토요일에는 프리즘 스토리를, 일요일에는 프리즘 다이닝 등이다.

◆ 2만2000종 '비스포크 냉장고'

첫번째 프로젝트 프리즘 제품은 비스포크 냉장고다. 획일적인 크기와 색상으로만 제작됐던 냉장고에 우선 프리즘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8개 타입이다.

1도어에서 4도어까지다. 냉동고와 냉동고, 김치냉장고 등 다양한 기능으로 분류된다.

4도어를 제외한 제품은 '키친핏'을 적용했다. 주방 가구와 꼭 맞출 수 있도록 깊이를 700mm 이하로 설계하고 높이도 1853mm로 통일했다. 그러면서도 내부 공간은 극대화 해 실용성도 키웠다. 비스포크 냉장고 여러개를 붙여도 하나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도어 패널 소재와 색상도 따로 고를 수 있다. 코타메탈과 새틴 글래스, 글랩 글래스 패널 3종과 화이트·그레이를 비롯해 네이비·민트·핑크·코랄·옐로우 등 9개 색상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만2000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8개 타입에 각 도어마다 패널 3종 및 9개 색상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패널을 교체할 수도 있다. 가격은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책 배려했다. 제품 가격이 104만9000원에서 484만원으로 기존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기 위해 생산라인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냉장고를 비롯한 주방가전에서 일반 생활가전까지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를 기념해 1년 동안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픽션'과 협업한 제품도 한정 판매한다. 인기 캐릭터를 도어 패널에 적용한 모델로, 6종으로 출시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냉장고가 획일화되면서 최근 3~4년간 한국 시장도 성장을 멈춰있었다"며 "비스포크 냉장고가 새로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화학, 新성장동력 신약 개발 美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올해 말까지 15명 전문가 현지 채용

LG화학이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글로벌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화학은 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 파트너사인 큐 바이오파마 다니엘 파세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는 임상개발, 중개의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스턴의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기술 도입 및 글로벌 신약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된다.

LG화학에 따르면 초대 센터장은 흥성원 생명과학사업본부 신약연구센터장이 겸임한다. 올해 말까지 총 15명의 전문가를 현지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개발 신약과제인 통풍,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2상 진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2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및 비임상 단계인 당뇨, 비만, 지방간 치료 신약과제 등도 향후 임상 1상을 진행하고 미국 '큐 바이오파마' 등으로부터 도입해 온 항암 신약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 오픈을 기념하며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LG화학

제들도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임상개발을 추진한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현재 4개 수준인 임상단계 신약과제를 2025년까지 15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혁신신약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갤노트10, 예상 스펙 공개에 기대감 '쑥쑥'

헤드폰 단자 등 물리적 버튼 삭제
충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빨라져

오는 8월 공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모습이다. 최근 갤럭시노트10에 대한 예상 스펙이 공개되면서다.

4일 해외 IT 매체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은 충전 속도가 전작보다 빨라지고 헤드폰 단자와 측면의 물리적 버튼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면 크기도 다양하게 출시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갤럭시노트는 하나의 화면 크기로 제품을 출시해왔다.

미국 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최근 삼성전자에 정통한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하며 갤럭시노트10에서 헤드폰 단자와 볼륨 조절, 전원, 빅스비 기능을 하는 물리적 버튼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3.5mm 헤드폰 단자를 없애는 추세다. 이미 애플, 구글, 원플러스, 화웨이, 샤오미 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3.5mm 헤드폰 단자를 없애고 USB 타입C 기반의 이어폰 단자를 채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미 중저가 스마트폰 A9 프로에서 3.5mm 헤드폰 단자를 없애 바 있다. 또한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통해 무선 이어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물리적 버튼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컨셉 디자이너 겸 IT 트위터러인 벤게스킨이 트위터에 올린 갤럭시노트10 모습. /벤게스킨 트위터



컨셉 디자이너 겸 IT 트위터러인 벤게스킨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폰11 모습. /벤게스킨 트위터

예상도 나오지만, 사라진다면 정정식이거나 압력식 센서 방식의 버튼을 내장될 가능성이 높다.

충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제품 중 갤럭시S10 5G가 25W의 충전 속도를 갖추고 있는데 갤럭시노트10은 이보다 2배가량 빨라진 45W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품의 마감 정보도 유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트위터러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레오나드로 다빈치 초상화와 숫자 '101101'을 포함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는 갤럭시노트10의 고속 충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2진법으로 표현된 101101를 변환하면 '45'가 된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인 갤럭시노트9의 4000mAh보다 늘어난 4500mAh를 채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노트 시리즈가 하나의 화면 크기로 출시됐던 것과 달리 다양한 크기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 중 갤럭시노트10 LTE 모델은 6.28인치와 6.75인치로 출시되며, 이외에 5G를 적용한 모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전면의 카메라 렌즈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O(O)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도 9월 공개 예정인 '아이폰11'에 아이폰 최초로 3개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기존 아이폰과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아이폰에 2개 카메라를 유지해왔다. 아이폰11은 전작과 같은 5.8인치, 6.5인치로 출시하고 노치 디자인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